풍경화를 통해 재현된 서울경관의 근대성과 그 함의

Modernity of the Seoul Landscape Represented through Landscape Painting and its Meaning

김재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yuul2@snu.ac.kr)

도시의 외부적인 급격한 근대화(도시화) 속에서 지리적 자아가 경험한 경관은 무엇이며 인간은 매체를 통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재현하고 있을까? 한국의 급격한 도시화는 그 내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 인식의 고리가 마비될 정도로 큰 사건들로 자리 잡고 있다. 몇십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농촌의 경관이 아닌 1년만 지나도 건물이 새로 세워지고 몇 번이고 상점이 바뀌는 곳이 서울의 도시화 단면이다. 그리고 서울 도시화의 단면에서 도시민의 지리적 인식의 주요 화제 중에는 도심의 거대한 건물들, 특정 구역에서 일어났던 사건들로 극히 현상적인 경험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의 고리를 투사하고 재현한 재현물 중 하나인 풍경화 또한 이러한 이 시기의 지리적 인식을 가늠할 수 있는 맥락을 반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리학은 그 어떤 지리적 현상이나 변화에 대한 특정 주제에 접근할 때 실재경관이나 지역에 기반하여 연구대상을 설정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실재경관이 아닌 재현경관(represented landscape)을 그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좀더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기존의 접근방법과는 정반대의 선상에서 접근한다고 볼 수 있다. 풍경화가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된 것은 보다 인간의 현상적인 지리적 경험(인식과 지향, 가치, 욕구)을 보고자 할 때 그 연구 대상의 시작점에 재현경관의 연구의의를 확인하고자 함에 있다. 그리고 지리학 연구에 있어 실재경관이 가지는 중요성을 넘어 재현경관의 연구가치를 제시함으로서 보다 다차원적인 연구의 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도 존재할 것이다.

재현경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본문의 전반부에서는 기존에 진행되어 온 '경관' 개념의 변화과정과 기존연구를 살펴보았으며, 또 재현경관인 풍경화가 지니는 지리적 함의를 해석하는 매체해석틀을 설정하고자 인간의 주관적 지리적 경험과 해석에 대한 장소감(sense of place) 논의를 끌어왔다. 장소감은 사람마다 제각기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형성되겠지만, 자연적 요소가 될 수 있는 경관의 가시적 외관과 특정 장소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관계, 그리고 그 위해 형성된 의미, 상징성이라는 세 가지 패턴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장소감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 녹아든 개념이고 위의 세 가지 구분이 거의 모호한 상태에서 진행되기도 하겠지만 재현경관의 경우 작품의 테마가 좀더 압축적이고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지오소피를 발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작품의 테마가 화가에게 보다 강하게 인식된 장소감의 특정요소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풍경화의 재현 패턴을 관조적 재현, 사회비판적 재

현, 미학적 · 윤리적 재현으로 구분하여 해석해 보았다.

본문은 후반부에서는 앞에서 전개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풍경화를 통해 재현된 서울경관의 근대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관조적 재현의 경우 오용길과 박강원의 작품을 선정하여 분석해 보았다. 두 작가 다 주지적인 성향의 작품들을 제작하고 있다. 주지적인 성향의 작가들의 작품에서는 대체로 작가의 감정이 극도로 자제된 상태서 작품의 대상을 냉소적인 자세로 재현한다. 따라서 인간사의 어떤 희노애락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이러한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바라본 서울은 거대한 도심의 고층빌딩의 단면과 국제적 도시경관의 획일화된 세계적 기업의 구조물이었다. 따라서 그 안에서는 사람들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고 보이더라도 극도의 익명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매우 단조로운 선과 색으로 처리하고 있다. 거대한 빌딩의 벽면은 손의 온기를 굳이 필요로 하지도 않으며, 고통스럽게 쓰러지지도 않고, 아무런 감흥 없이 존재한다. 이러한 냉소적인 작품의 대상은 서울의 중심에 자리 잡은 도심의 모습이 되고 있음을 작가는 그저 보여주고 있다. 익명성은 서로에 대한 앎의 부재에서 시작된다. 서울은 당시 전국각지에서 몰려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새로운 장소였다. 따라서 서로 다른 사고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장에 대한 인식이 자라기 시작한다. 동전의 양면화같이 극단적인 익명성에 대한 자각은 서로를 포용해야할 당위성을 가지게 하며 관용의 장소로서의 욕구를 형성하게 된다.

두 번째 사회비판적 재현의 경우 위의 관조적 재현보다는 좀더 뜨거운 인간사가 벌어지는 현장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에서 그들에게 강하게 인지된 장소는 판자촌이었으며 판자촌이 허물어지자 갈 곳 없는 이들이 모여든 곳인 달동네였다. 이만익, 오용길, 임옥상의 작품속에서는 그렇게 힘겨운 삶의 현장이 그대로 녹아져 있으며, 또 그 가운데 상실된 인권에 대해서 인간애에 대해서 고통과 자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시의 정서와 농촌의 정서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서울은 임옥상의 작품에 등장하는 이사가는 농민의 불안한 눈빛과 해질녘 아직 퇴근하지 못해 허름한 집 까만 창문 옆 작은 길목의 능선을 타고 지붕까지 오른 달빛에서 음울하게 재현되고 있다.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개발은 분명 필요하지만 당시의 도심개발에서 삶의 내부자의 결정권의 상실은 부당하고 각박한 사회현실을 반영하는 장소로서 인지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것이 작품에 상징적으로 재현되고 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공동의 목적을 모색하는 사회적 합의의 부재가 부른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이들 작품에서는 보다 자유롭게 소통하는 장소의 필요성과 자각을 가져온다.

마지막으로 미학적 · 윤리적 재현을 볼 때, 현실에 반복적으로 마주쳐야할 현실의 모습이나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는 도시적 정서와 농촌의 정서에 대한 비판보다는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애와 삶의 의지, 추구해야할 정체성에 대한 창조적인 재현이 발견된다. 김한오의 따뜻한 종로야경과 손상기의 강인한 삶의 애착과 생명력, 이종상의 서울의 맑고 정연한 내면경관재현은 인간의 삶의 자리가 되고 있는 서울경관에 대한 진심어린 애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다. 손상기의 '자라지 않는 나무' 로 비유되는 공작도시의 장애는 그 장애를 지닌 도시를 걷고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한 자각을 더욱 날카롭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사람들마다 제각기의 관점아래 판단을 하고 또 비판을 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하나하나 세워나간다고 한다면, 그러한 각자의 목소리에 대한 묵인보다는 인정과 보다 발전적인 시각에 대한 공

감이 필요할 것이다. 서울이라는 장은 그래서 더욱 큰 관용에 기초한 열린 시각과 보다 창조적인 주체적 자생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나와는 다른 곳에서 태어났으며, 사고와 가치가 다른 타인을 그 자체로 이해하며, 또 자신의 생각을 뚜렷이 전할 수 있는 자존감의 확립이라고 하겠다.

추구해야할 지향점과 그 목표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열정을 제시하는 과정에는 극히 주체적이며 능동적인 자아를 요구한다. 이 시대의 화가들의 인식과 재현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왜 그러했으며, 이들의 작품을 보는 우리의 지리적 인식과 의식에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식의 훈련이 없이 지나칠 수 밖에 없는 너무나도 많은 현실이 우리에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은 지리적인 자아로서 경관에 대한 각기 다른 인식과 사회적 과정을 경험한다. 오랜 시간 삶의 자리가 되어온 서울경관에서 강한 인식의 상을 주는 경험은 특정 경관에 대한 지리적 자아의 장소감을 부여하는 동기가 된다. 서울도시경관을 통해 투영되는 근대성은 지리적 자아를 통해 주목되고 해석되어지며, 또 재현된 자신의 삶의 자리에 대한 자각과 능동적인 기투이다. 이는 현실에 대한 냉정한 관조일수도 있고, 날카로운 비판일수도 있으며, 잃어버린 정신에 대한 자각일 수도 있고, 나아가 미학적 · 윤리적 의지를 표명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일수도 있다.

1994년 서울 정도 600년을 기념으로 한 '서울풍경 변천전' 은 한국사회에 있어 체화된 지리적 인식이 그대로 표출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특히 이 때 전시된 작품들 중에는 우리가 자각해야할 우리의 건강한 자아의식과 생명력으로 그대로 녹아있으며 이는 사람이 살아온 공간으로서의 예술가들의 인간애가 경관을 통해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이 시기를 기억하며, 또 그들의 미학적 지관념을 읽으면서 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서울이 가지는 강인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 생명력과 인간애이며 그 가운데 다음 세대를 살아갈 이들에 대한 배려일 것이다.

주요어 : 재현경관, 장소감, 지오소피, 근대성, 관조적 재현, 사회비판적 재현, 미학적?윤리적 재현, 관용의 장, 소통의 장, 자생성의 장